

무항생제 인증 현황 및 향후 전망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될 것으로 기대

지난 2007년 3월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개정 실시된 이후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국가적 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특히 계란과 닭고기와 같은 양계 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란계를 중심으로 인증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친환경축산물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취급자(재포장유통업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양적 팽창은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친환경을 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등록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들을 살펴보면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유기적 사양관리를 통한 유기 산란계에서 유기계란을 생산, 인증받은 농가는 22농가로 나타났으며 유기 계육을 생산, 인증받은 농가는 6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무래도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만큼 생산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점도 일조를 한다고 본다.



**김 범 석**  
건국국제유기인증센터 사무국장  
사료영양학박사

그러나 무항생제 양계산물을 생산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무려 566농가로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가 349 농가에 달하는데 이는 산란계 사육에 있어 오래전부터 백신프로그램이 정착된 결과와 산란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축종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낮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철저한 중추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참고로 중추가 항생제사료와 관행적 사양관리로 무항생제 사육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이 5개월에 달함은 많은 농가들이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데 커다란 제약으로 따른다. 무항생제 계육을 생산하는 육계농가는 173농가로 무항생제 오리육을 생산하는 농가 43농가를 합하면 216농가에 달하는데 이들 무항생제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위탁사육주체인 모기업의 무항생제 시장 확보에 따라 농가수가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에서 친환경인증받은 양계농가들을 살펴보면 총 594농가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

표2에서 보면 무항생제 계란을 재포장 유통하

는 업체가 18곳이고 닭고기를 재포장 유통하는 업체가 12곳, 그리고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곳이 4개소로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재포장 유통업자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체가 총 34개소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개별포장하여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시장과 일반 소매점을 제외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일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80%이상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것이 판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및 취급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8년 10월)

구 분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비 고
산란계	22	350(1)	
육 계	6	216(43)	
취급자 (재포장유통업자)	32		표 2 참조
총 계	28	566	594

※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 중 ( )농가는 오리사육농가

**표2. 취급자(재포장 유통업자)인증을 받은 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8년 10월)

항목	산란계	육계	오리
업체명	한국양계협동조합 에스와이푸드(유) 농업회사법인(주)청계원 (주)김포금란 돈돈팜(주) 에그스타 흥생농장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 (주)에그빌 한라양계축산업협동조합(경북영천) 조인(주) 한일영농조합법인 오성농장 (주)계성 엔에스피(주) 농업회사법인에그플러스(주) (주)풍림푸드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주)체리부로 (주)마니커 연산식품(주) 케이씨푸드 원식품 (주)마니커 대구지점 (주)울품 (주)금보식품 태연유기농축산 베델농산 (주)이가에프디에스 (주)지မ်식품	(주)코리아더커드 (주)안창마을 베델농산 (주)성실
업체수	18	12	4

### 친환경인증의 발전방향(전망)

친환경축산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시방개방에 대한 압박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보강하여 지금까지 농업에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의지를 담게 되었으며, 이 법은 동물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다. 즉, 유럽과 같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축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국제

교역시 동물복지수준을 연관지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자유 무역협정(FTA)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심증대로, 농축수산물 구매패턴이 안전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생산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주변여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들은 일선에서 발 빠르게 진행해왔으나 주변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원자재(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사료비
2.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폭등
3.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
4. 값싼 수입닭고기의 급증
5. 정부 비축물량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단 양계산업에

표3. 친환경축산물 년도별 인증 현황

연도별	인증구분	계			유기			전환기			무항생제		
		건수(건)	농가수(호)	출하량(톤)	건수(건)	농가수(호)	출하량(톤)	건수(건)	농가수(호)	출하량(톤)	건수(건)	농가수(호)	출하량(톤)
2007	생산자	465	763	13,562	54	99	2,002				411	664	11,560
2006	생산자	53	68	1,671	51	52	1,661	2	16	10			
2005	생산자	18	18	256	16	16	224	2	2	32			

\* 국내 생산자 인증 현황으로, 최소 단위(톤) 이하는 통계 처리된 자료임  
 \* 전환기유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07.3.29.부터 유기로 통합

표4. 친환경축산물 종류별(품목별) 인증 현황

연도별	종류별(품목별)	계	유기	전환기	무항생제
2007	닭고기	4,155	95		4,060
	계란	5,250	282		4,968
2006	닭고기	146	146		
	계란	405	405		
2005	닭고기	11	11		
	계란	110	78	32	

\* 국내 생산자 인증 현황으로, 최소 단위(톤) 이하는 통계 처리된 자료임  
 \* 전환기유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07.3.29.부터 유기로 통합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완책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정책
2. 무항생제 표준 사육시스템 개발
3. 친환경축산물 생산자 지원
4.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통한 신뢰구축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 보완책을 생각해 보았지만 현재 국가간 FTA협상에 따른 앞으로의 무한 국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산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수입산과 차별하고 고급 브랜드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지역출장소와 49개의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사후관리 또한 책임지고 있다.

축산물인증은 전문적 지식을 완비한 축산전문가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인증받은 농가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축산물을 원칙에 입각해 선정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하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을 받는 농가 모두 책임을 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인증농가가 어렵게 생산한 생산물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정부와 양축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자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전 생산과정동안 원칙에 충실한 사양관리(철저한 백신 프로그램)가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타 농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 인증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를 덮는데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친환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이 먹는 축산물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실 것을 바라며 언제라도 친환경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건국 국제유기인증센터 사무국장 김범석 박사(019-434-0005)에게 연락 바란다. **양계**